조흥화학, "한정" 의견으로 추락

금융감독위,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… 한국합섬·대일화학도 문제

2001년 12월 결산법인 중 조흥화학이 감사보고서에서 [한정]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.

한국합섬도 [한정] 의견을 받았으며, 대일화학은 [의견거절]로 보고돼 경영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, 2001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감사종료보고서 제출대상 1274사 가운데 2002년 4월1일 16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법인은 전체 대상법인의 99.5%인 1267사이며, 전체의 0.5%인 7사가 제출하지 않았다.

감사의견이 "적정" 이외 법인현황

구 분	주권상장법인	협회등록법인
한 정 (24)	- 누보텍 - 대선주조 - 대영포장 - 동신 - 서광 - 세우포리머 - 세풍 - 셰프라인* - 신광기업 - 신화실업 - 쌍용자동차 - 유화 - 이룸 - 조흥화학공업 - 한국합섬 -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- 한창 - 핵심텔레텍 - 환영철강공업 - GPS*	- 대한바이오링크 - 서울전자통신 - 세림아이텍 - 웰컴기술금융
부적정(4)	- 고합 - 동성 - 삼미 - 오리온전기	
의견거절 (15)	- 대우전자 - 대우통신 - 대일화학공업 - 메디슨 - 삼익건설 - 아이넥스테크놀로지 - 이지닷컴 - 이트로닉스 - 인천정유 - 청구 - 한별텔레콤 - 한보철강공업 - 효성기계공업 - KEP전자	- 휴먼이노텍

*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"한정"의견

제출을 완료한 법인(1267사) 중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이내에 제출한 법인은 제출법인의 85.2%인 1080사이며, 지연 제출한 법인은 제출법인의 14.8%인 187사로 나타났다.

외부 감사인은 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9에 따라 당해 감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감사종료보고서 제출법인의 감사의견 현황

구 분	주권상장법인		협회등록법인		합 계	
	2000	2001	2000	2001	2000	2001
적 정	519 (90.7)	529 (93.5)	490 (96.3)	695 (99.1)	1,009 (93.4)	1,224 (96.6)
한 정	27 (4.8)	19 (3.3)	12 (2.3)	5 (0.7)	39 (3.6)	24 (1.9)
부적정	6 (1.0)	4 (0.7)	1 (0.2)	— (—)	7 (0.6)	4 (0.3)
의견거절	20 (3.5)	14 (2.5)	6 (1.2)	1 (0.2)	26 (2.4)	15 (1.2)
합 계	572 (100.0)	566 (100.0)	509 (100.0)	701 (100.0)	1,081 (100.0)	1,267 (100.0)

+ ( ) 안은 구성비(%)

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1267사(2000년 1081사의) 감사의견은 "적정" 법인이 1224사(전체의 96.6%)로 나타나 2000년(1009사로 93.4%)에 비해 3.2%p 증가한 반면, "한정"의견은 24사(1.9%), "부적정"의견은 4사(0.3%), "의견거절"은 15사(1.2%)로 각각 1.7%p, 0.3%p, 1.2%p 감소했다.

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정책의 효과가 개별기업에 잘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.

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07사 가운데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한 102사의 감사의견은 "적정"의견이 68사(전체의 66.7%), "한정"의견이 16사(15.7%), "부적정"의견이 4사(3.9%), "의견거절"이 14사(13.7%)로 나타났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04/04>